

## 정조의 의학관

김선형\* 김달래\*

1. 머리말
2. 시대적 배경
3. 임상경험을 중시한 의학
4. 유학사상에 기반을 둔 의학
5. 『수민묘전(壽民妙銓)』에 나타난 정조의 의학적 시각
6. 맺음말

### 1. 머리말

정조(正祖) 시대는 문화적 부흥기라고 일컬을 만큼 문화가 다방면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정조는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수민묘전(壽民妙銓)』이라는 의학서적을 정리한 임금이었다. 세조의 의약론(醫藥論)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학의 윤리관에 좀 더 가깝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의학관(醫學觀)에 대해서는 아직 조명이 되어 있지 않다. 기

존에 정조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다. 정조와 의학에 관해서는 18세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전염병과 의료제도에 대한 보고와,<sup>2)</sup> 『제중신편(濟衆新編)』등에 관한 보고가 있고,<sup>3)</sup> 정조의 체질을 살펴보고<sup>4)</sup> 사망 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정리한 보고<sup>5)</sup>가 있다. 그러나 정조의 의학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명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 한의학적인 임상내용은 임상가가 아니면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사상체질과

- 1) 황입경, 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2003;12(2):97-109.
- 2) 김호. 정조대의 의료 정책. 한국학보 1996;22(1):240.
- 3)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지창영, 김남일. 제중신편을 통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대논문집 1998;21.
- 4) 김선형, 김달래.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정조의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21(1):44-52.
- 5) 김달래, 김선형.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142-161.

고 본다.

논자는 정조의 사망원인을 사상체질의학적으로 살피게 되면서 정조가 의학적 식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정조가 질병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고 처방을 하는 것이 나온다. 그가 처방에 따라서 병의 전변을 살피는 것을 볼 때 그가 일정 부분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정치와 의술은 마찬가지로라면서 당시에 의학을 경시하던 풍토를 개탄했다. 이와 같이 정조는 의학을 애민정치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여겼었다.

정조는 『홍재전서(弘齋全書)』라는 개인 문집을 남길 정도로 지적 수준이 넓고 또한 다 방면에 학문적 신견이 높았던 임금이었다. 그의 학문에 대한 입장은 경학에 바탕을 두면서도 경험과 실용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학문의 입장은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할아버지인 영조를 시탕(侍湯)하면서 영조의 소변을 맛보는 과정 등<sup>6)</sup>을 통해 의학을 배워나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의학적 지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홍재전서』, 『국조보감(國朝寶鑑)』등을 통하여 나타난 정조의 의학에 관한 관점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정조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정리하여 『수민묘진』을 저술하였는데, 두 책의 본문을 비교하여 정조의 의학을 보는 관점을 살펴보았다.

## 2. 시대적 배경

정조의 의학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치세기간(1776-1800년) 당시의 의료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정조 시대의 의료 현황을 당시의 의사제도, 전염병 상황, 새로운 의학 사상의 도입 등의 3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정조 시기의 의사제도는 선대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조 9년에 반포된 『대전통편(大典通編)』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의원(內醫院)·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의 관직 기구와 그 수에 있어서 선대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의감의 종팔품(從八品)에 해당되는 봉사(奉事)를 연산군 대보다 1인을 증원하는 변화를 주기도 하였지만, 이는 연산군 대에 감원했던 인원을 되돌려 놓는 수준에 불과하였다.<sup>7)</sup> 그러므로 의사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정조 시대는 선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의사제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조 시대의 의학 정책은 선대와 비교하여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의서의 편찬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실제 정조대에 여러 의서가 편찬되었다. 정조는 조선 왕 가운데 유일하게 『수민묘진』이라는 의학 서적을 남겼고, 또한 『제중신편』이라는 관찬(官撰) 의방서(醫方書)를 저술하도록 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직접 편집에 관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그의 의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학에 대한 정조의 관심은 그가 『홍재전서』라는 개인 문집을 남길 정도로 지적 호기심과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한 동궁 시절 10년 동안 영조의 시탕을

6) 朝鮮王朝實錄: 卷54 대왕 대비전이 내린 행록(行錄) 正祖 24年 6月 21日.

7)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0. p.408, 412, 414, 415.

하는 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본 단락에서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전염병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 시대는 혹자가 주장하듯이 ‘전염병의 시대’<sup>8)</sup>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였다. 당시 전염병은 조선에서만 창궐했던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마진·천연두가 유행하였고, 그 결과 전염병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중국에서는 16세기 중엽에 두의법(痘衣法)·비묘법(鼻苗法)의 초보적인 종두법(種痘法)이 발명되었고,<sup>9)</sup> 17세기 후기에는 러시아에서 유학생을 보내 종두를 배워 갈 정도로 기술을 축적하였다.<sup>10)</sup> 그 결과 청대(淸代)에 이르러서는 많은 두진방면의 전문서적이 편찬되었다.<sup>11)</sup> 정조 시대에도 전염병의 유행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정조 재위기간 동안 22회의 역병이 발생하였고, 동궁 시절까지 포함하면 31회의 역병이 발생하였다.<sup>12)</sup> 이 가운데 특히 정조 10년에 마진(麻疹)이 크게 유행을 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sup>13)</sup> 마진은 주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전염을 우려한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조는 ‘자홀전칙(字恤全則)’이라는 유기아(遺棄兒) 구휼정책을 발표하고,<sup>14)</sup> 더 나아가 마진에 대처하기 위해 경험 처방을 모아 전문 서적을 편찬할 것을 명하게 된다. 여러 학자들이 정조의 명을 받들어 마진 관련 서

적을 저술하게 되니, 대표적인 것이 정약용(丁若鏞)의 『마과회통(麻科會通)』과 이원풍(李元豐)의 『마진회성(麻疹彙成)』이다.<sup>15)</sup> 마진 관련 서적 외에도 두창과 관련된 서적으로 『종두심법요지(種痘心法要旨)』가 정약용에 의해 정리되어 『마과회통』의 말권(末卷)에 부록되었다. 이 서적은 중국 연경에 갔던 박제가(朴齊家)와 박릉양(朴菱洋) 등이 가져온 중국의 종두서인 『의종금감(醫宗金鑑)·유과종두심법요지(幼科種痘心法要旨)』와 정망이(鄭望頤)가 기론한 『정씨종두방(鄭氏種痘方)』을 합하여 개편한 것이다.<sup>16)</sup>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염병의 유행은 정조의 의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신종인플루엔자라는 전염병이 유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일정 부분 치료법과 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에 대한 인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더구나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조선시대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의 입장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임금은 전염병 관련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정조 또한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하들에게 전염병 관련 의서 편찬을 독려했고, 자연스럽게 정조 자신도 의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8)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p.40.

9) 중국의 인두종법에 대해서는 15,6세기에 터어키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는 주장도 있다.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0. p.344.

10) 홍원식, 윤창열.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p.413-4.

1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외 13인.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p.327-8.

12) 김호. 정조대 의료 정책. 한국학보 1996;22(1):240.

1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0. p.339.

14) 김호. 정조대의 의료 정책. 한국학보 1996;22(1):240.

15)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0. p.342-3.

16) 위의 책. p.344-5.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대한 정조의 인식과 당대에 유입된 명대 서적들과 관련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의보감』은 1611년에 간행되어, 이후 조선 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정조대에 이르면 『동의보감』이 간행된 지 17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이에 따라 일정부분 그 한계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정조는 『제중신편』의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게 된다.

우리 조선의 의서 가운데 오직 허준의 보감이 비록 상세하고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이 혹 번거롭고 장황하며, 말이 혹 중첩되기도 하며, 증상은 간혹 빠지기도 하고, 응용처방의 경우 또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sup>17)</sup>

위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정조는 『동의보감』에 증상과 응용 처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장만 가지고는 과연 정조가 지적하고자 했던 빠진 증상과 응용처방이 무엇이었든가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조대 이후 나타나는 내의원의 변화된 의학 경향을 통해 그 일면을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영조대 이후 내의원에서는 보법, 그 중에서도 보양법을 중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명대(明代)에 성행했던 온보학과(溫補學派)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온보학자들의 대표적인 서적인 손일규(孫一奎)의 『적수현주(赤水玄珠)』와 장개빈(張介賓)의 『경악전서(景岳全書)』는 각각 1722년과 1713-1724년 사이에 조선에 들어오게 된다.<sup>18)</sup> 이 가운데 장개빈(1563-1640)은 온보학과를 대표하는 의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이론은 “양비유여(陽非有餘),

음상부족(陰常不足)”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가 의업에 종사하던 시기에, 많은 의사들은 원대의 의학자인 주단계의 “양상유여(陽常有餘), 음상부족(陰常不足)” 이론과 ‘상화론(相火論)’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 결과 자음강화(滋陰降火)를 하기 위해 지모(知母)와 황백(黃柏) 등 차가운 성질의 약물을 다용하는 의학적 경향성이 농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장개빈 본인도 의학을 공부하는 초기에 주단계의 이론을 신뢰할 정도였다.<sup>19)</sup> 그러나 많은 의가들이 제대로 된 변증을 하지 않은 채 주단계의 학설을 쫓아 찬 성질의 약을 다용하게 됨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장개빈은 주단계의 ‘양상유여’ 이론을 비판하면서 ‘양비유여’의 학설을 주장하게 되고, 인체의 원양(元陽)·진양(眞陽)을 강조하는 온보(溫補) 이론을 성립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이 발간된 이후 명 나라에서 새로운 학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학설을 담고 있는 서적이 1700년대 초에 조선에 유입되었다. 서적이 유입됨으로 인해 조선 의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조시대는 『동의보감』이 발간된 지 이미 170여 년의 기간이 흐른 뒤였다. 그 결과 정조는 새로운 의학서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본인 스스로 『수민묘전』이라는 서적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제중신편』의 편찬을 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임상경험을 중시한 의학

군왕의 교육과정에 특별히 의학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조와 정조는 모두 선대왕

17) “我朝醫書，惟許浚寶鑑，雖稱詳悉，然文或繁冗，語或重疊，證或闕漏，而應用之方，亦多有不錄者。” 강명길. 한국 의학대계 제중신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627.

18)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2007;16(2):151-3, 157.

19) 진대순, 증용, 황정덕 엮음. 맹용재 등 읍김. 각가학설 중국편.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323.

의 시탕을 통해서 의학적 식견을 넓혔다. 특히 『제중신편』의 서론과 『수민묘전』의 서론에 정조가 동궁시절 10년간 선대왕의 간병을 통해서 의학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 선왕인 영조의 시탕을 통해서 정조가 의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상이 세자로 있을 때 10년 동안 약시증을 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은 진맥(診脈)에 대한 비결과 탕약(湯藥)에 대한 이론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널리 의술(醫術)의 이치를 탐구하여 위로는 『소문(素問)』과 『난경(難經)』으로부터 아래로 역대의 모든 처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골고루 열람하였다.<sup>20)</sup>

나는 어려서부터 의서(醫書)를 탐독해 왔고, 병술년(1766, 영조42)에서 병신년(1776, 영조52)에 이르는 10년 동안은 선대왕의 간병으로 편히 떠를 풀고 잔 적이 없었으므로 맥결(脈訣)과 약성(藥性)에 대하여 저절로 두루 알게 되었다.<sup>21)</sup>

위 글에서 나타나듯이 정조는 맥결과 약성에 대해서 저절로 두루 알게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의학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가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식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선왕인 영조의 시탕이라는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일득록(日得錄)』을 살펴보면 정조의 본초와 처방에 관한 견해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본초나 처방의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 한 후 본인 또는 신하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복용하거나 붙이거나 한 내용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정조는

경험의 의학을 중시하면서 본인의 의학경험을 본초설명에 투영시켜 서술하고 있다.

의학에 있어 경험을 중요시한 정조의 이러한 견해는 의학서적 편찬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조 10년(1785)에는 마진이 대유행하였기 때문에 왕명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서들이 편찬되었다. 정조는 이 병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경험 의서를 지어 바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여러 학자들이 책을 지어 바쳤고, 정조는 그것을 공포하여 병의 치료에 앞장섰다. 또한, 당시 어의인 강명길을 시켜 간행하게 한 『제중신편』에도 경험을 중요시한 정신이 잘 나타난다. 즉, 기존의 『동의보감』을 간략화 하면서 조선에서 나는 향약과 경험중심의 속방(俗方)을 증가시키고 있다.<sup>23)</sup> 한편, 『홍재전서』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곳곳에 정조의 의학 경험이 녹아 있으며, 실제로 정조는 의학에서 맥을 통한 진단, 변증의 분류, 실용적인 치료 방법 등을 매우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조는 몸으로 체득한 의학을 이해한 것이다. 병의 진단에서 근원을 찾는 것을 중요시 했고, 망문문절(望問聞切) 사진(四診) 가운데 맥진을 변증의 기본 사항으로 이해했다. 한의학에서 진단은 의사의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한의학에서 인체의 정기신(精氣神)이라는 정밀한 기운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자기 몸을 바르게 만들고 환자를 많이 접해 보아서 경험을 쌓을 때만 가능하다. 정조는 비록 평소에 화병이 있어서 쉽게 본인의 몸을 바르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임상을 좋아하는 군주였다. 그 일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조 어찰첩 중 1798년 7월 19일 어용수가 이질을 앓은 내용이 나온다. 정조는 이때 그의

20) 朝鮮王朝實錄: 卷54 正祖 23年 12月11日.

21) 弘齋全書: 卷8 序引一 壽民妙詮序.

22) 弘齋全書: 卷178 日得錄18 訓語5.

23)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51.

이질은 씻어내고 차갑게 하는 처방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어용수의 나이가 많아서 인진원과 같은 덥고 습한 약재를 쓴 의원들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의원들은 다시 8월6일 어용수에게 인삼과 계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어용수는 통증이 심해졌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의원을 더욱 비난하게 된다. 정조의 의견이 어용수의 치료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정조는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던 것이다.<sup>24)</sup> 한편, 1798년 5월 10일의 편지에서 심환지 부인의 병에 대해서, 치료를 위해 사용한 처방을 궁금해 하며<sup>25)</sup> 본인의 의견을 주장한 내용이 나온다. 또한, 정조 10년 5월 8일 세자가 홍역에 걸렸다 회복이 된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세자가 혼수에 빠지고, 상기증(上氣症)과 축닉증(擣擱症)이 나타난다. 이때는 이미 세자의 홍역의 회복으로 의약청이 해산 된 상태였다. 이때 정조는 인삼(人蔘)과 부자(附子)를 직접 처방하게 된다.<sup>26)</sup> 이때 세자는 만 4살이 채 되기 전이다. 이후 세자가 사망하자 홍역에 인삼과 부자라는 반치법(反治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치료에 임한 의원들을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조는 본인이 점검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sup>27)</sup> 이때 세자에게 나타났던 증후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sup>28)</sup>에 나타나 있는데 세자는 갑자기 혼침(昏沈)에 빠져 가끔 기가 오르는 증후를 나타내며 사지 또는 몸이 오그라드는 축닉증의 증세를 보인다. 정조는 강하기도 하지만 눈물도 많은 왕이었다. 세자가 죽기 전 축닉증이 심하자 매우 슬퍼하며 차마 볼 수가 없다고 말

한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로서, 치료에 임한 의원을 처벌하지 않는다. 정조는 스스로 점검했으니 의원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삶과 죽음과 생명의 길고 짧음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정조의 의학적인 자신감이며, 인간으로서 의학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 4. 유학사상에 기반을 둔 의학

##### 1) 의학은 효의 실천이다.

조선시대에 의업은 증인의 학문이었다. 그러나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민간에서,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입장에서 의학지식의 습득은 중요한 효의 실천 가운데 하나였다.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유학자들도 의학서적을 가까이 두고 읽었던 것이다. 즉, 효를 실천하는 덕목으로 의학을 공부한 것이니 ‘유문사친(儒門事親)’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학에서는 효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고, 의학 지식의 습득은 효를 실천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은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상생활에서 왕세자에게 제일 강조되는 덕목은 효이다. 왕세자는 문안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국왕의 수라상을 살피는 시선(視膳)과 부모의 약을 먼저 맛보는 시탕(侍湯)<sup>30)</sup>을 해야 했다. 시선이나 시탕은 국왕의 자식 중 대표로서 왕세자가 해야 할 일이었다. 정조도 이와 같은 세자의 기본적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더 나아가 정조는 15년간 왕세손으

24) 백승호, 장유승, 박철상 외 5인. 정조어찰첩.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p.214-5, 235.

25) 위의 책. p.184.

26) 朝鮮王朝實錄: 卷21 正祖 10년 5월 10일 1번째 기사.

27) 朝鮮王朝實錄: 卷21 正祖 10년 5월 16일 3번째 기사.

28) 承政院日記: 冊1600 正祖 10年 5월 10日(壬子).

29) 朝鮮王朝實錄: 卷21 正祖 10년 5월 10일 1번째 기사.

3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국왕의 일생. 경기도: 글항아리; 2009. p.27-9.

로 있으면서 10년 이상 선왕의 병을 정성껏 돌보았다. 왕이 된 후에도 정조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다. 정조가 사망 직전 얻게 된 부스럼도 어머니의 병을 돌볼 때의 피로가 원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조에게 의학은 효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또한 『제중신편』 편찬 시에도 노인을 치료하기 위하여 새로이 22방을 증보하고 있으니, 효를 강조한 편찬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정조가 시탕을 할 때 영조는 이미 70세의 고령을 넘어서고 있었다. 영조는 군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개인적인 비극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용을 거부하며 치료를 외면하는 일이 잦았다.<sup>31)</sup> 이때마다 정조가 식음을 전폐하고 할아버지인 선왕을 간병하였고,<sup>32)</sup> 정조의 정성으로 영조가 탕약을 복용하게 되었다.<sup>33)</sup> 이처럼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정조가 아니면 영조에게 탕약을 복용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난다. 정조의 효행은 할아버지인 영조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 정적이라고 일컫는 정순왕후에게도 행해진다. 이에 대해 정순왕후는 정조의 행장에서 정조의 간병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적고 있다.<sup>34)</sup>

한편, 『국조보감』에는 정조의 승하(昇遐) 원인으로 “탕약을 시중들다가 피로가 쌓여 이달 초부터 부스럼 증세가 생기더니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다”<sup>35)</sup>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이와 같이 왕이 되어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정조의 모습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조에게 있어 의학은 웃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공경의 표시였다. 영조의 안색을 살피거나 소변

을 맛보기도 하고, 어머니의 종기를 짜내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행하였던 것이다.

## 2) 의학은 애민정치의 기반이다.

정조의 애민사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언(上言)·격쟁(擊鎗) 제도를 개선했다. 백성들의 억울함이 왕에게 바로 전달되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다. 형벌의 악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흙전칙(欽恤典則)]을 만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왕이 공포한 내용이 백성들에게 직접 전해질 수 있도록 유음(俞音)의 말미에 언해본을 첨부하게 하였다. 또한, 전염병에 의해서 버려지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자휼전칙(字恤典則)]을 제정하여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최우선 사업으로 진휼정책을 다루었다.<sup>36)</sup> 이처럼 제도와 법률을 개정하여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의 의학사상 또한 이러한 애민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니, 『수민묘전』과 『제중신편』을 통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수민묘전』이란 책의 제목은 이천(伊川)의 용시환해수사민(用時還解壽斯民)이라는 시구에서 두 글자를 따온 것이다. 백성을 오래 살게 하는 신묘한 책이란 뜻이다. 『제중신편』의 서명(書名)은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 의서인 황우제중방(皇佑濟衆方)과 연관이 있다. 제중이란 민중을 구제한다는 뜻인데 송나라의 인종이 백성들의 구료에 힘쓰고 인정(仁政)을 베푸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 편

31) 朝鮮王朝實錄: 卷107 英祖 42년 4월 2일 1번째 기사.

32) 朝鮮王朝實錄: 卷108 英祖 43년 3월 17일 2번째 기사; 朝鮮王朝實錄: 卷54 대왕 대비전이 내린 행록(行錄) 正祖 24年 6월 21日.

33) 朝鮮王朝實錄: 卷125 英祖 51년 8월 10日 2번째 기사.

34) 朝鮮王朝實錄: 卷54 혜경궁이 내린 행록(行錄) 正祖 24年 6월 21日.

35) 國朝寶鑑: 卷75 正祖 24年 1800年 6월.

36) 김호. 정조대의 의료 정책. 한국학보 1996;22(1):231-254, 240, 247.

찬된 서적을 『제중신편』이라고 명명한 것이다.<sup>37)</sup> 정조는 어의인 강명길에게 의서의 편찬을 명하고, 한편이 완성될 때마다 직접 열람하여 첨삭을 가한 뒤, 완성된 책에 대해 『제중신편』이라는 이름을 내렸다.<sup>38)</sup> 『제중신편』은 『동의보감』의 번잡한 부분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효율성이 강조된 의서이다. 『제중신편』에는 83종의 약물이 추가되었는데, 이 가운데 여지(荔枝)를 제외하고는 모두 향약이었다.<sup>39)</sup> 또한, 『제중신편』은 약명을 향약명(鄉藥名)으로 표기하였으며 향약이 주가 되는 새로운 처방을 개발해 내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즉, 국내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를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제중신편』의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었다.<sup>40)</sup> 정조는 백성들이 단방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데 간단한 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질병을 키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제중신편』의 편찬에 반영하고 있으니, 바로 약성가의 표기이다. 약성가(藥性歌)는 약물의 성질을 노래 형식으로 외우기 쉽게 만든 것이다.<sup>41)</sup> 이는 정조가 백성들이 향약의 단미(單味)나 간이방(艱易方)으로도 질병의 치료에 쉽게 다가서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제중신편』은 이후 황도연(黃道淵)의 『방약합편(方藥合編)』의 편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42)</sup>

## 5. 『수민묘전(壽民妙銓)』에 나타난 정조의 의학적 시각

『수민묘전』은 총 5권 가운데 2권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권1은 『동의보감』의 「내경편(內景篇)」을 정리한 것이고, 권2는 「외형편(外形篇)」과 「잡병편(雜病篇)」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권2에 포함된 「잡병편」은 천지운기(天地運氣)·심병(審病)·변증(辨證)·진맥(診脈) 문(門)이다. 정조는 「탕액편(湯液篇)」과 「침구편(鍼灸篇)」등 치료 부분은 권5에 따로 정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료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내용을 권4에 분배해서 정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용이나 분량 등을 고려할 때, 권1에 「내경편」, 권2에 「외형편」, 권3-4에 「잡병편」을 분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2의 끝 부분에 「잡병편」에 해당되는 4개의 문(門)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2가지 정도의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위에서 제기된 4개 문(門)의 내용은 병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권2와 함께 정리했을 수도 있다. 둘째, 현재 전해지는 2권 본(本)의 권2 뒤에 「잡병편」의 내용이 더 기술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유실된 채 현재 전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2가지 추론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조가 『동의보감』의 내용을 줄여서 정리한 『수민묘전』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7) 김호. 정조대의 의료 정책. 한국학보 1996;22(1):250.

38) 弘齋全書: 卷132 故寃4 朱子大全3.

39)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51.

40)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3. p.263.

41) 弘齋全書: 卷184 羣書標記6 命撰 濟衆新編 9권.

42) 지창영, 김남일. 제중신편을 통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대논문집 1998;21:104.

먼저 편제에 있어서 정조는 『동의보감』의 편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근문(筋門)과 골문(骨門)의 내용이 빠져 있고, 모발문(毛髮門)은 발문(髮門)으로만 기재하였고, 변증문(辨證門)의 경우는 항목의 제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편제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각 문(門)의 항목에 있어서는 항목 전체를 뺀 경우가 있었고, 또한 항목을 보존시켰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대부분 줄여서 정리하고 있다. 이에, 먼저 각 문에서 삭제한 항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수민요전』 정리 시 삭제된 『동의보감』 항목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卷	門	삭제된 項目
내경편 (內景篇)	신형(身形)	人氣盛衰, 年老無子, 古有真人至人聖人賢人, 論上古天真, 學道無早晚, 還丹內煉法
	정(精)	煉精有訣
	기(氣)	衛氣行度, 榮衛異行, 生氣之原, 氣爲呼吸之根, 調氣訣, 氣絕候, 禁忌
	신(神)	神病不治證
	혈(血)	脈法, 血病吉凶, 黑藥止血, 禁忌
	꿈(夢)	魂離不睡, 思結不睡, 老少之睡不同, 臥不安, 身重嗜臥, 惡人欲獨處, 寢睡法, 辟惡夢
	목소리(聲音)	卒然無音, 因雜病失音, 厥氣爲瘖, 聲嘶, 息有音, 不治證
	언어(言語)	鄭聲, 言微, 噫, 太息
	진액(津液)	陰汗, 血汗, 黃汗, 漏風證, 亡陽證, 止汗法, 絕汗, 柔汗, 汗出凶證, 禁忌
	담음(痰飲)	辨痰色
	오장육부 (五臟六腑)	臟腑有合, 五臟有官, 五臟有大小, 臟又有九, 腑又有六, 腸胃之長水穀之數, 五臟正經自病, 脈辨臟腑, 五臟死期
	간장(肝腸)	肝形象, 肝屬物類, 肝臟大小, 肝絕候, 肝臟修養法, 肝臟導引法
	심장(心臟)	心形象, 心主時日, 心屬物類, 心臟大小, 手少陰無輸, 心絕候, 心臟修養法, 心臟導引法
	비장(脾臟)	脾形象, 脾主時日, 脾屬物類, 脾臟大小, 脾絕候, 脾臟修養法, 脾臟導引法
	폐장(肺臟)	肺形象, 肺主時日, 肺屬物類, 肺臟大小, 肺絕候, 肺臟修養法, 肺臟導引法
	신장(腎臟)	腎形象, 腎主時日, 腎屬物類, 腎臟大小, 兩臟同一腑, 腎絕候, 腎臟修養法, 腎臟導引法
	담부(膽腑)	膽形象, 膽外候, 膽病治法, 膽絕候, 膽腑導引法
	위부(胃腑)	胃形象, 胃腑大小, 胃外候, 胃絕候
	소장(小腸腑)	小腸形象, 小腸傳受, 小腸外候, 小腸絕候
	대장부(大腸腑)	大腸形象, 大小腸連系, 大腸外候, 大腸絕候
	방광부(膀胱腑)	膀胱形象, 膀胱外候, 膀胱絕候
	삼초부(三焦腑)	三焦形象, 三焦傳受, 三焦外候
	포(胞)	胞形象, 經行有異, 和血治法, 調血治法, 通血治法, 經斷復行
충(蟲)	三尸蟲, 五臟蟲, 濕熱生蟲, 諸物變蟲, 驗療法, 療不治證, 辨療蟲形色	
오줌(小便)	脬爲尿器, 小便難外候, 難治不治證	
대변(大便)	泄痢易治難治辨, 泄痢吉凶證, 飯後隨即大便, 老人秘結	

외형편 (外形篇)	머리(頭)	頭部度數, 頭痛不治難治證, 腦縫開裂
	얼굴(面)	明堂部位, 腎風證
	눈(眼)	五輪之圖, 八廓之圖, 哭泣喪明, 眼病易治難治辨, 眼中生火, 眼病禁忌, 目視凶證
	귀(耳)	耳重聽
	코(鼻)	修養法
	입혀(口舌)	舌衄, 失欠脫頤, 自嚙舌頰
	이빨(牙齒)	上下齧屬手足陽明, 牙齒疳蟲瘡, 齒黃黑, 消齒壅法, 鬪齒, 齒衄
	인후(咽喉)	咽喉度數, 咽喉病名, 尸咽, 傷寒咽痛, 咽喉瘡, 喉痺失音, 咽喉急閉宜鍼, 咽喉不治證
	목(頸項)	頸項寸數, 風府宜護
	등(背)	背脊骨節有數, 脈法,
	가슴(胸)	胸膈度數, 臟腑經脈皆貫膈, 心腹并痛
	젖(乳)	無兒則當消乳, 乳癰年高不治, 爛頭破裂
	배(腹)	腹圍度數
	배꼽(臍)	煉臍延壽, 臍宜溫煖, 臍凶證
	허리(腰)	腎着證
	옆구리(脇)	脇痛分左右, 腎邪上薄爲脇痛, 腋臭, 漏腋
	피부(皮)	없음
	살(肉)	肉苛證, 肉絕候, 贅肉
	맥(脈)	寸口者脈之大要會, 六部脈圖, 寸關尺合一寸九分, 相反脈
	팔(手)	手部度數, 手領肩膈肘臂腕, 手五指有名, 四肢熱, 臂痛有六道經絡, 肩臂骨脫臼, 心虛手振, 手爪占病, 手足皸裂
다리(足)	足部度數, 足領脾股膝脛膕脛腕, 熱厥成痿, 脚病凶證	
모발(毛髮)	十二經毛髮多少, 髮眉鬚髭髯各異, 宦官無鬚, 髮占凶證	
전음(前陰)	陰冷, 陰腫, 疝病危證, 婦人陰門諸疾	
항문(後陰)	肛門重數, 痔有內外	
잡병편 (雜病篇)	하늘땅운기 (天地運氣)	論一元十二會三十運, 天地之形, 南北極, 黃赤道, 天地依附, 天氣流行, 陰陽之氣升降盈虛, 天地不足之方, 四方異宜, 地理有壽夭之異, 南北病治法, 五行生剋順逆, 五行盛衰圖, 六氣之化, 氣候差異, 十干, 十二支, 四時氣候, 論天地六氣, 交六氣時日, 主氣, 客氣, 十干起運圖, 十二支司天訣, 論標本, 陰陽相錯, 五音大小, 五運紀運, 歲中五運, 論南北政, 六氣承制
	병의 진찰법 (審病)	診病之道, 察病玄機, 五臟者中之守, 占新久病, 可治難治證, 七診死候, 五臟及陰陽絕候, 雜病占死候
	증 가르는 것 (辨證)	便寒便熱, 勇怯異形, 臟腑病緩傳, 臟腑病急傳, 榮衛生病, 能食不能食, 二尸四異四奇, 八虛候五臟, 人不食七日死
	맥 짚어보기 (診脈)	天和六脈, 知代脈定死期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조는 『수민묘전』을 정리하면서 『동의보감』의 항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삭제하였다. 삭제된 항목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를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규칙성과 의미성을 갖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교적 내용, 특히 연단(煉丹)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다. 신형문(身形門)의 인기성쇠(人氣盛衰)·연노무자(年老無子)·고유진인지인(古有眞人至人聖人賢人)·논상고천진(論上古天真) 항목은 모두 『황제내경』의 문장이자 『황제내경』은 도가적 영향을 많이 받은 서적이고, 특히 『황제내경·소문』의 첫 편인 『상고천진론』은 도가적 내용이 가장 농후하게 녹아 있는 편이다. 『동의보감』은 책의 첫 머리에 이와 같이 도가적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배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조는 『수민묘전』을 정리하면서 도가적 내용을 대부분 삭제하였고, 특히 연단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연단과 관련된 내용은 신형문(身形門)의 환단내련법(還丹內煉法), 정문(精門)의 연정유결(煉精有訣), 기문(氣門)의 조기결(調氣訣) 등이 있는데, 모두 삭제하였다. 둘째, 용어나 병증을 정의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실제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기문(氣門)의 위기행도(衛氣行度)·영위이행(榮衛異行)·생기지원(生氣之原), 천지운기문(天地運氣門)의 항목들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어떤 질병의 원인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른 병인을 기술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몽문(夢門)에서 정조는 혼리불수(魂離不睡)·사결불수(思結不睡)·노소지수부동(老少之睡不同)·와불안(臥不安)·침수법(寢睡法) 등의 항목을 제외했다. 정조는 수면에 관계되는 것을 위기(衛氣)의 작용으로만 인식하고, 그 외의 내용은 삭제하였다. 넷째,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이 경우는 문장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내용이 중복되면 삭제하였다. 오장육부문(五臟六腑門)의

간속물류(肝屬物類)·심(心)속물류·비(脾)속물류·폐(肺)속물류·신(腎)속물류 등은 오행을 귀속시켜 정리한 것인데, 『동의보감』 문장 곳곳에 이 내용이 흩어져 기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이 중복될 경우 삭제하였다. 다섯째, 오장 육부의 해부와 관계된 그림과 글을 대부분 삭제하였다. 『수민묘전』에서는 『동의보감』에 있는 장부도(臟腑圖) 등의 그림을 삭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부학과 관련된 내용도 대부분 삭제하였다. 즉, 오장육부의 형상 및 크기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이상 『수민묘전』이 정리되면서 삭제된 『동의보감』의 항목들 가운데 정조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항목의 삭제 이외에, 보존된 항목 내에서도 인용한 문장을 삭제한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고 하겠다. 첫째, 『신형(身形)·수요지이(壽夭之異)』에서는 『소문』의 문장을 삭제하고 우단(虞搏)의 문장만 남겼다. 『소문』의 내용은 후천적 양생만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우단은 부모로부터 부여 받은 선천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의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정조는 도가적 내용이 포함된 항목을 대부분 삭제하였다고 했는데, 이 항목도 같은 의도에서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형(身形)·인신유일국(人身猶一國)』에서는 『소문·영란비전론』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소문·영란비전론』에서는 심을 군주지관(君主之官), 폐를 상부지관(相傳之官) 등으로 표현하면서, 오장육부에 관직명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대의 실재했던 관직명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황제내경』이 정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관직명을 살펴보면 『영란비전론』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영란비전론』에서는 각 장부의 기능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약간은 관념적이면서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조는 관념적

이면서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흉복(胸腹)-궁실(宮室), 사지(四肢)-교경(郊境), 골절(骨節)-백관(百官) 등 형체를 실재하는 사물에 비유한 내용은 보존하고 있다. 셋째, 신문(神門)에서는 16개 항목 가운데 모두 8회에 걸쳐 『소문』의 문장이 인용되었다. 이 경우는 신이 인간의 감각 기능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형이상(形而上)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은 관념적이라 할지라도 신(神)을 잘 설명한 구절을 보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혈열능상혈(血熱能傷血), 뇨혈(尿血)」에서 정조는 출혈 증상의 경우 모두 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뇨혈의 경우 방광과 소장의 열이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한(寒)에 의한 출혈 내용을 삭제하였고, 주상(酒傷)·색상(色傷)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뇨혈의 내용은 삭제하였다. 다섯째, 「진액(津液)·두한(頭汗)」에서 두한의 원인이 양허(陽虛)에 해당되는 문장만 보존하고, 혈증(血症)·양명위가실(陽明胃家實)·수결흉(水結胸)과 관계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여섯째, 「담음(痰飲)·맥법(脈法)」에서 『동의보감』의 경우 담맥(痰脈)은 현활(弦滑), 음맥(飲脈)은 현미침활(弦微沈滑)로 구분한데 비해, 정조는 인용 문장의 내용을 변화시켜 담음의 맥을 현활(弦滑)로 정리하였다. 일곱째, 「포(胞)·혈폐(血閉)」에서 혈폐의 원인을 상중하초의 열결(熱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허증(虛症)이나 사려과도(思慮過度) 등에 의한 혈폐(血閉)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정조는 『수민묘전』을 정리하면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즉, 『동의보감』의 문장 가운데 일부분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투영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가 『수민묘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내용과 삭제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보감』에서 중요시했다고 평

가받고 있는 도가적인 내용은 대부분 삭제하였다. 특히, 연단법(煉丹法)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다. 둘째, 중복된 내용이 있을 경우 삭제하였고, 병증 부문에 있어서 실제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셋째, 질병의 원인에 있어 다양한 병인을 나열하는 대신, 가장 중심이 되는 병인(病因) 하나만을 기술하고 있다. 넷째,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정조는 의학에 있어 실용적이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맺음말

정조는 조선의 문화적 부흥기를 이룬 군주로서 여러 방면에서 상세히 조명되고 있지만 의학에 대한 부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정조는 조선 왕 중에 유일하게 『수민묘전』이라는 의학서적을 정리할 정도로 높은 의학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의 의학관(醫學觀)을 살펴보았다.

정조는 의학에 있어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정조는 선왕인 영조의 질병을 10년간 시탕하면서 의학적 식견을 넓히게 된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수민묘전』을 직접 정리했고, 신하들에게 『제중신편』, 『마과회통』 등을 편찬하게 하였다. 특히, 『제중신편』과 『마과회통』 등을 편찬하도록 명령할 때는 민간의 경험 처방을 수집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조에게 있어 의학은 유학의 기본개념인 효와 애민정치를 실천하는 방편 가운데 하나였다. 선대왕 영조와 어머니에 대한 그의 효성은 시탕으로 드러난다. 정조가 시탕 과정에서 병증과 처방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모습은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나타난다. 또한 향촌의 사람들이

라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중신편』을 발간한다. 이는 백성들이 향약의 단미(單味)나 간이방(簡易方)으로도 질병의 치료에 쉽게 다가서게 하기 위한 정조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후 황도연의 『방약합편』의 편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정조는 『수민묘전』을 정리하면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즉, 『동의보감』의 문장 가운데 일부분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학적 견해를 투영시켰다. 정조는 『수민묘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의보감』에 기술된 도가적인 내용, 특히 연단법(煉丹法)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중복된 내용과 실제 임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

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였다. 질병의 원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병인을 나열하는 대신, 가장 중심이 되는 병인(病因) 하나만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조는 의학에 있어 경험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실용적이면서 실제적인 내용을 중요시 하였다.

색인어 : 정조, 수민묘전, 조선왕조실록, 제중신편

투고일 2009. 12. 3.	심사일 2009. 12. 3.	게재확정일 2009. 12. 10.
------------------	------------------	---------------------

참고문헌

- 국조보감(國朝寶鑑).
- 동의보감(東醫寶鑑).
- 수민묘전(壽民妙詮).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보감(國朝寶鑑).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홍재전서(弘齋全書).

강명길. 한국의학대계 제중신편. 서울: 여강출판사; 199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국왕의 일생. 경기도: 글항아리; 2009.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외 13인. 강좌 중국의학사. 서울: 대성의학사; 2006.  
 김달래, 김선형. 정조의 사망원인에 대한 연구(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9;30(4).

-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90.
- 김선형, 김달래.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정조의 사상체질. 사상체질의학회지 2009;21(1).
- 김정선, 황상익. 조선 후기 내의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학 경향. 의사학 2007;16(2).
- 김호. 정조대의 의료 정책. 한국학보 1996;22(1).
- 백승호, 장유승, 박철상 외 5인. 정조어찰첩.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4.
- 지창영, 김남일. 제중신편을 통해본 강명길의 의학사상. 경희대논문집 1998;21.
- 지창영. 제중신편의 의사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진대순, 증용, 황정덕 엮음. 맹옹재 등 옮김. 각가학설 중국편. 서울: 대성의학사; 2001.
- 황임경, 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2003;12(2).
- 홍원식, 윤창열.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중사; 2001.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Chosun wangjo sillok) Available at URI: <http://sillok.history.go.kr>. Accessed March 5, 2009.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ongjejeonse. Idkrok HunE. Available at: URI: <http://www.minchu.or.kr>. Accessed March 5, 2009.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KukGoBoGam Idrok Available at: URI: <http://www.minchu.or.kr>. Accessed March 5, 2009.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eungJeongWon Ilgi (The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http://sjw.history.go.kr>. Accessed March 5, 2009.

= ABSTRACT =

### King Jung-jo's Medical Philosophy

Kim Sun-Hyung\*, Kim Dal-Rae\*

King Jungjo who introduced the advent of cultural renaissance of Chosun Dynasty as little been known about his work in medicine. With a wide knowledge in medicine, he was the only one among the kings who wrote a book on medicine, called 『SueMinMyoJeon』. In this paper, his perspective on medicine will be looked into based o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朝鮮王朝實錄)』,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Hong Je jun Se(弘齋全書)』, 『KukGoBoGam (國朝寶鑑)』, 『Ildkrok(日得錄)』, 『JeJungShinPyun (濟衆新編)』, 『SueMinMyoJeon(壽民妙詮)』 etc.

King Jungjo valued empiricism in the field of medicine. He deepened understandings in medicine while taking care of King Youngjo, the late king. And it led him to author 『SueMinMyoJeon』 himself, and further ordered the publications of 『JeJungShinPyun』 『MaGuaHeoiTong』. These two books were conducted to include empirical cases of folklore remedy.

King Jungjo's medical philosophy can be epitomized in filial piety and realization of people-serving politics, which are the essentials of Confucianism. His filial piety towards the late king, Youngjo and his mother is shown in his devotion when taking care of them. Especially the way he examined the differentiation of diseases and corresponding treatments is well described i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JeJungShinPyun』 was also published and it came handy for folk villagers in times of medical needs. Later this book influenced 『BangYakHaepPyun』 by Hwang Do Yeon.

King Jungjo emphasized pragmatism in spreading medical knowledges, thus removing the theoretical contents that are related to Taoism, especially the ones on alchemy from 『DongEuiBoGam』, when publishing 『SueMinMyoJeon』. Even the excerpts from 『SoMun』 were taken out, if not practical. King Jungjo, however, discussed the importance of healthy regimen and mentioned himself practicing it from the book 『IlDeukLok』, which seems to be the only book that derailed from the pragmatistic track.

King Jungjo put emphasis on consistency between diagnosis and treatment. In diagnosing, Meridian pulse was taken important as a means of finding the origin of disease, while deploring how doctors then neglected to study.

**Key Word** : Jung-jo, SueMinMyoJeo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JeJungShinPyun.

---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ast west neo medical center,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